

지역 매아리

고부면민의 날 · 민민체육대회

제18회 고부면민의 날과 제28회 민민체육대회가 지난 6일 고부초등학교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고부면(면장 김병욱)과 고부면체육회(회장 김운석), 고부문화권보존사업회(회장 김호근), 고부면이장협의회(회장 김기수)에서 주최했다.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외빈과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진 행사는 고사부리성 답성놀이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 기념식, 2부 체육행사, 3부 민민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체육회 송형용 전 회장과 강용식 총무가 시장 감사패를, 고부 자율방범대를 비롯 김갑환씨와 백원미씨가 체육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안전모니터봉사단 간담회

고창군이 지난 5일 군청 상화실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원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안전모니터봉사단 지회장 과 읍·면 봉사단원이 참석해 지금까지 지 안전신고 활동실적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현재 28여 명의 정예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교통안전을 비롯해 가로등, 건축물 등 생활주변에 대한 안전위험요소 예방과 신고 등을 주요 임무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회원 1인당 매월 1안전신고 운동을 실천하면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소방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2018년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실습·참여형 수업을 통해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주요내용은 ▲ 소방공무원 직업 소개 및 이해 ▲ 채용과정 및 자격증, 관련학과 안내 ▲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등 직업체험 ▲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 ▲ 현장대원들의 체험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570-1242)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책 읽는 즐거움 · 소통 · 나눔'

정읍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 독서 프로그램 · 역사 특강 ·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

작은 도서관이 책 읽는 즐거움과 소통, 그리고 나눔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 단지나 집 앞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주변 가까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저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과 소통하고 친분을 다질 수 있고 다양한 문화 활동도 즐길 수 있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에는 모두 14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작은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문화강좌와 독서 프로그램, 역사 특강, 요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선진 도서관 탐방, 책가 함께 하는 미술 여행, 찾아가는 서비스(책 배달), 웃음치료 등 책과 접목 시킨 다양한 강좌들로 구성돼 있다.

'도서관으로 마실가게(실버작은도서관)', 생활요가(상교작은도서관)와 캘리그래피(초산작은도서관), 다문화 맞춤형 학습지도(다문



작은 도서관이 책 읽는 즐거움과 소통, 그리고 나눔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화작은도서관)과 영화 상영(책 향기 작은도서관) 등 각 지역별, 도서관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목초작은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지구촌 음악여행'과 '영화 속 사람 만나기' 등 모두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11월까지), 호응

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의 독서와 문화체험 공간으로서는 물론 책을 매개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커뮤니티 역할도 하면서 책 읽는 즐거움과 소통과 나눔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경계령

정읍시 보건소, 식중독 예방 수칙 안내 · 당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 경계령이 내렸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90건, 310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중 50건(55.6%), 1669명(53.3%)이 3~5월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정읍시보건소가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퍼프린젠스는 생장 과정에서 열

에 강한 포자를 만든다.

따라서 조리과정을 통해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과 같은 식중독균 자체는 사멸하지만 포자가 남아 있어 조리 후 보관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

포자가 남은 조리된 식품을 잘못된 온도에서 보관하면 포자가 깨어날 수 있으며 균이 증식하면서 만들어 지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다.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도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도 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 등의 식품은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되도록 완전히 조리해야 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또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따뜻하게 먹은 음식은 60도 이상, 차갑게 먹은 음식은 빠르게 식혀 5도 이하에서 보관한다.

보건소는 ▲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기 ▲ 심크대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후 큰술이나 밥비를 담고 규칙적으로 젓기 ▲ 급속 냉각장치 사용하기 등의 조리된 음식을 식히는 올바른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뜨거운 음식을 냉장·냉동고에 바로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해 보관 중인 음식도 상할 수 있으므로 식혀서 넣어야 하고, 보관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75도 이상에서 재가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 선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은 노지채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첨단 정보통신기술)장비 지원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농업현장에 ICT를 접목해 원격관리를 활용,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에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노동력과 에너지, 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면서 농산물의 생

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한 스마트 농업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군은 노지채소 스마트팜 선도 모델을 무장면 덕립리 정동표 의 여섯 농가로 구성해 사업심사 요건인 현장평가와 공개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박우정 군수는 "김장채소인 무 주산지인 고창에서 노지채소 스마트팜 시설을 확산시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 영농 현장에 걸맞은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 환경여건에 맞는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이 되어 고창의 김장채소를 경쟁력 있는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은 노면 균열과 침하로 요철이 심하고 노후화된 군도, 농어촌도로 12개소 8.25km에 대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 차선마모로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8개소 27.73km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 차선도색공사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가드레일 1.2km, 반사경 85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고창경찰서와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21

개소에 대한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들은 이달 중 착공하여 다음 달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제15회 고창청보리밭축제' 등 고창군민 뿐만 아니라 고창군을 찾아올 관광객과 재외군민 등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다.

박우정 군수는 "매년 군도와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가드레일 1.2km, 반사경 85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고창경찰서와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21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free day 두물마당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저출산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제4회 free day 두물마당'을 열었다.

고창군이 주관하고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700여 육아가정이 참여 했다.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스칸디아모스, 쿠키클래스, 저글링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더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험실 무료이용, 클로버 부모-자녀 체험 교육 등 실·내외에서 다양한 체험이 이뤄져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김명준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와 고창군이 주최하는 공동부모교육을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하며,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동부모교육은 클로버 부모교육을 포함하여, 부모-자녀 체험활동, 자녀권리존중, 가정 내 놀이환경점검, 아동학대 예방,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와 2018년 신규 교육인 영유아 발달이해 및 부모 양육태도 점검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 Wine featuring Mulberry Wine and various gift sets. Includes tex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 Premium Odi Wine'.